



제 4회

HDI 인간경영대상 시상식

2018년 12월 20일(목) 17:30~18:30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 (구 리츠칼튼)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한 영 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실현해 내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 계발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42년 전 리더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겠다는 비전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해 나가면서 HDI 창립이념인 『인간경영의 철학』을 실천하는 우수한 기업, 기관의 경영자를 발굴하여 시상식을 만들어 제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 산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가 배출되고, 그러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밝고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와 기업 발굴로 미래 세대에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와 조직』을 꿈꾸고 실천하며, 그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고자 신설한 인간경영대상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0일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한 영 섭

제 4회 HDI 인간경영대상에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존중의 경영을 실천하신 경영자를 선정함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을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황 식

HDI 미래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기업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인간존중, 섬김의 리더십으로 경영자 본인의 교육은 물론 더 나아가 임직원 교육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수상자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수상자 중 특별상의 영예를 받으시는 이승율 이사장님과 공로상의 박호균 총장님은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어렵고 힘든 역경을 딛고 바르고 정대한 기업환경을 만드신 공이 크시어 후배 경영인들에게 큰 귀감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시고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는 경영자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숨은 일꾼들을 찾아 빛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HDI 미래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황 식**



손 경 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손경식입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 라는 기치로 42년 여간 대한민국 리더 양성에 큰 일조를 해오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이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정신을 기리는 HDI 인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개발연구원이 이러한 훌륭한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단계에 이미 들어섰지만, 안타깝게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는 미진하여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제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중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절실히 필요하고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직적인 명령체제에서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그 조직 리더의 인본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질적으로 높은 성장이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우리 주위의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경영자를 보고 배워서 더욱 철학이 탄탄한 리더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사상과 노력을 통해서 수상자분들과 경영자분들이 미래세대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시작하여 1회부터 올해 4회까지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어 수상하신 모든 분에게 축하를 올리며,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이 훌륭한 리더들의 면모를 찾아내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잘 수행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경 식

먼저 제 4회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상들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개발연구원이 관장하여 시상하고 있는 HDI인간경영대상은 인간개발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으로 수상자들을 상찬하고 널리 현창해야 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님은 40여 년 전 우리가 가진 부존자원이란 인적자원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외롭게 그러나 묵묵히 인간개발연구원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데는 많은 숨은 리더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이념인 인간경영의 철학을 실천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우수한 기업, 기관의 경영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일은 매우 뜻깊고 소중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HDI 인간경영대상이 날로 발전하여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이끄는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인간개발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손 병 두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2018년 12월 20일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손 병 두**



● 심사위원

직 책	이 름	회 사
위 원 장	이금룡 회장	코글로 닷컴
위 원	가재산 대표	피플그룹
위 원	구건서 회장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위 원	김선화 대표	한국가족기업연구소
위 원	김승일 소장	행복한경제연구소
위 원	염동호 이사장	한국메니페스트 정책연구소
위 원	이수경 회장	가정행복코칭센터

● 평가자문위원

직 책	이 름	회 사
위 원 장	김항식	호암재단 이사장 (제 41대 국무총리)
위 원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위 원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 (전 교육부 장관)
위 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CJ그룹 회장)
위 원	손병두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전 서강대 총장)
위 원	유장희	매일경제신문 상임고문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위 원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전 숙명여대 총장)
위 원	이만의	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
위 원	이배용	세계문화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 (전 이화여대 총장)
위 원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위 원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위 원	조남철	한인문화진흥원 원장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위 원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시상식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20	집결 및 환담 - 귀빈 영접 / 간담회 / 포토존 촬영	
17:20~17:50	개 회	정찬우 아나운서
	국민의례	
	개 회 사	장만기 회장
	심사총평	이금룡 심사위원장
	축 사	김황식 HDI미래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17:50~18:30	시 상 식	평가자문위원(장) 외 다수
	수상자 소감발표	각 수상자

● 수상자 명단



사회공헌부문

거봉그룹
백용기 회장



사회공헌부문

파나소닉코리아(주)
노운하 대표이사



인재교육부문

(주)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회장



인재교육부문

(주)체리쉬
유준식 회장



특 별 상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울 이사장



상생지속부문

바이네르(주)
김원길 대표이사



상생지속부문

(주)KSS해운
이대성 대표이사



창조혁신부문

텔스타홈텔(주)
임병훈 회장



창조혁신부문

빔피프랑스
한홍섭 회장



공 로 상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호군 총장



거봉그룹

백용기 회장

- 2015년 중화민국 입법원 외교최고영예훈장 수훈
- 2013년 중화민국 입법원 외교훈장 수훈
- 2013년 중화민국 외교부 외교훈장 수훈
- 2009년 중화민국 경제부 경제훈장 수훈

백용기 회장은 지난 2009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화민국 경제부로부터 경제훈장 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중화민국 중국문화대학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2013년 중화민국 외교부의 외교훈장과 입법원의 외교훈장에 이어 외교최고영예훈장까지 수상하여 한국과 중화민국 민간외교의 '그랜드 슬램' 을 달성했다.

거봉그룹의 백용기 회장은 한마디로 '나눔 전도사' 라 할 수 있다. 그는 사단법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명예대장으로 취임하여 심장병어린이 수술지원 및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고 사단법인 한민족문화협회 총재로서 한민족문화예술대상을 제정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힘쓰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 거봉백병원의 회장으로서, 1969년 미국인 선교사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Dr.Sibley의 봉사와 지역민의 토지기증의 숭고한 뜻으로 설립된 거제기독병원은 열악한 의료 환경과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되던 중 백용기 회장 취임 후 거봉 백병원으로 개명하고 현재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의 나눔공헌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도중학교는 2005년 당시 57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의 위기에 있었으나 백용기 회장의 취임 후 나눔과 열정으로 현재 문화예술 명품학교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예술을 좋아한 그의 영향은 문화예술 전반의 나눔활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거제도의 거봉백병원을 인수한 후, 거제지역 산업경제의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거제시민 기살리기를 위한 무료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열린음악회 및 전시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및 시민들이 음악이 가진 깊고 다양한 치유의 힘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많은 기부와 도움을 주고 있다.

백용기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중화민국 간 경제교류와 수많은 나눔 공헌 및 민간 외교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중화민국 경제부와 외교부 및 입법원으로부터 경제훈장 및 외교훈장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중국문화대학으로부터 명예경영학 박사학위까지 수상하였다.

이러한 그의 아낌없는 나눔 공헌정신과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은 현 시대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공헌부문

Panasonic

파나소닉코리아(주)

노운하 대표이사

- 2018년 사회공헌대상 4년 연속 수상
- 2018년 한국의 사회공헌 대상 4년 연속 수상
- 2017년 제 44회 상공의날 산업포장
- 2016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는 파나소닉은 글로벌 최대 가전기업으로 'A Better Life, A Better World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창업자의 경영이념을 기반 삼아 다양한 CSR 및 CSV(공유가치창출)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파나소닉코리아(주)는 단순기부를 넘어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사회봉사(파나소닉CSR투어)를 통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 2007-2010 모든 시설을 방문하고 단순 기부위주로 진행, 2011-2016 청소년보육시설 중심, 꿈키워주기 활동 등을 프로그램화 하고, 2017-현재 전국농어촌 등 지방도시 중심으로 기부처를 확대하였다. 파나소닉코리아(주)가 카메라 중심 기부를 하는 이유는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이은 2번째 선호물품이기도 하며, 사진동호회 구성과 출사대회 개최 유도하고 프로사진작가로 성장하여 직업이 보유 가능하고, 무료강좌 및 콘테스트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메라 기부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강원도 10개 센터 CSR기부 방문을 기점으로 전국적 기부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카메라, 책, 구강세정기, 헤어드라이기, 프로젝터 등 파나소닉 제품과 함께 생필품 기부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TOP스폰서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다양한 후원하였다. 그간 CSR투어로 방문했던 곳의 청소년, 각계각층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경기관람을 통해 패럴림픽 선수들의 인간 승리의 극기정신으로 청소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였다.(리조트 숙박, 식사, 경기2회 관람, 교통, 기념품 제공)

이에 그치지 않고 연탄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후원 및 전사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을 실천 중이다. 매년 연말 365일, 36.5도의 체온을 항상 유지하자라는 의미의 사랑의 연탄봉사활동으로 수도권지역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총 연탄 36,500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챌린지를 통해 단순 기획안 제출 공모전이 아닌 체험형 공모전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마케팅 기획안 작성, 리뷰 콘텐츠 포스팅,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한 개인 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으로 대학생에게 파나소닉의 브랜드 인식 제고와 대학생들이 파나소닉의 제품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중이다.



(주)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회장

- 2016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년 대통령 표창
- 2014년 글로벌경영부문 최우수경영대상
- 2008년 한국무역협회 올해의 무역인상 수상

(주)메타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의료용 소재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전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1990년 메타치재산업사라는 개인회사로 출발해 10년이 지난 1999년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그 후 10년이 지나 200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러한 (주)메타바이오메드의 성장동력에는 바로 ‘인재교육’이라는 오석송 회장의 경영 모토가 숨어있다.

그는 개발과 생산 및 영업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며, 조직은 사람의 집합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재는 채용보다 양성을 통해 만들어지며, 개인의 발전과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인재관으로, 사내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교육, 외부 업무보수 교육, 개인별 선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사고와 변화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반기 직원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타기업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재정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교육시간 21,859 시간과 총 교육비 338백만원을 투자하는 인재경영에 걸맞은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교육시간 및 지출 교육비는 년 35시간, 569천원에 달한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여 학위 연계형 2명, 자격 연계형 7명 인재 양성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교 및 대학원의 개인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중소기업 내일채움 공제를 통해 핵심인력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경영 중심의 노력 결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친화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인재교육경영을 몸소 실천하여 직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주)체리쉬

유준식 회장

- 2015년 대한민국 모범 기업인 표창장
- 2013년 대한민국 우수기업 선정
- 2013년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선정
- 2012년 대통령 표창 우수기업 선정



가구업계의 ‘혁신경영’ 신화로 알려진 (주)체리쉬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한 삶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 가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체리쉬의 인재교육 경영전략은 업무방식, 사고방식, 영업 및 조직 운영, 조직문화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 중에서도 인력양성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주5일 근무와 자유로운 연차사용, 정시 퇴근문화와 워라벨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일가양득 유연근무제 도입하여 물류센터, 경영관리실, 브랜드 기획실, 전략기획실, 영업기획팀, 렌탈사업팀, 개설팀, 특판사업파트, 데코파트, 영업 2팀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근무형태로 업무를 진행한다. (A형 08-17시/ B형 09-18시/ C형 10-19시)

두 번째로 일 근무시간의 단축을 실행시켰다. 물류센터, 경영관리실, 브랜드기획실, 전략기획실, 영업기획팀, 렌탈사업팀, 개설팀, 특판사업파트, 데코파트, 영업2팀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삭제하였다.

(물류직군 08:00-17:40 → 08:00-17:00 / 사무직군 09:00-18:30 → 18:00)

세 번째로 워라벨을 위해 영업직군 휴무일 개편하여 영업1팀 직영부문 소속직원, 공동구매파트 소속직원 대상 영업직군 월간 휴무 월 6회에서 8회로 확대하고, 월간 휴무일수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6~7회 휴무 선택 시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환산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군을 대상으로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시간이 있다면 주도적이고 집요함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다. 일 8시간 근무시간 중 특정시간을 배정하여 오직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근무시간 내 상사의 호출, 잦은 미팅 및 회의, 커피 및 담배챗 등의 금지하여 집중근무시간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재교육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주)체리쉬는 앞으로 가구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을 연출하는 토탈리빙 홈 데코레이션 사업으로 또 한번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준식 회장의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인 직원교육 경영전략은 많은 기업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바이네르(주)

김원길 대표이사

- 2013년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 2012년 행정안전부 철탑산업훈장 수상
- 2012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수상
- 2008년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바이네르(주)는 1994년 설립 후 다양한 제품개발로 고객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구두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두연구개발에 온 정성을 기울여 왔다. 설립이후 1996년 이태리 ‘바이네르’ 한국 라이선스 판매권을 체결하고 꾸준한 성장을 해온 바이네르(주)는 2011년에는 국내시장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세계무대로 진출하고자 ‘바이네르’ 상표권을 인수하여 로열티를 주는 회사에서 받는 회사로 발돋움 하였다.

김원길 대표는 1984년 전국기능경진대회 제화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한 장인 출신의 기업인이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화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기업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이윤의 사회 환원 등 상생지속경영기업인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이네르(주)의 경영이념은 “세상을 아름답게/사람들을 행복하게/그 속에서 우리도 행복하게” 이다.

그의 상생지속행보는 2007년부터 가정의 달 5월에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가을 배추가 풍년이 들어 배춧값이 폭락했을 때 농협과 협력하여 배추 3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전개하여 상생지속경영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김원길 대표의 특이한 사회공헌 중에 한 가지는 ‘멋있는 군인 문화 만들기’ 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활동으로 인근 부대인 9사단, 1사단, 1군단과 자매결연을 하여 선후배에게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모범병사를 선출해 유럽/호주 여행을 년 2회 지원하며, 1군단 모범간부 부부 10쌍에게 태국여행을 년 2회 지원하며, 불우병사 성금, 배드민턴 탁구용품과 같은 체육 기자재 후원, 부대 다문화 가정 후원, 강당시설 음향설비 후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및 후원을 하며 상생지속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김원길 대표의 행보는 다른 기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상생지속경영부문 수상에 걸맞은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상생지속부문

CORPORATE & RESEARCH
(주) KSS 해운
KSS LINE LTD.

(주)KSS해운

이대성 대표이사

- 2017년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비제조-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2017년 제5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 2016년 한국선급 2016년 안전관리우수선사
- 2015년 한국해운물류학회 2015 해운물류경영대상



1969년 설립된 (주)KSS해운은 설립초기부터 당시 업계의 고질적 관례였던 리베이트를 배격하며 5無(리베이트, 밀수, 사시, 사내인맥, 회계조작)을 통해 상생지속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주)KSS해운은 설립이후 가스/케미칼 등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선사로서 지속 성장 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매해 지속된 성장을 이루었다.

이대성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 취임하여 기업의 ‘성장성’, ‘사회적 가치’, ‘직원들의 복지’ 3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노력하였고, 조직문화/구조 등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하여 (주)KSS해운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으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충족시켰다.

그는 취임 이후 (주)KSS해운의 회사의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였다. 회사의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임/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임/직원은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분명한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생지속경영을 실천한 결과, 2017년 실적 기준 2014년 대비 매출액은 1,375억원에서 1,77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20억원에서 451억원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장은 ‘이익공유제’를 통하여 직원들이 고스란히 다시 가져가게 되었다. 직원들은 2014년 총 23억원의 이익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2017년에는 총 36억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2014년 도입된 ‘이익공유제’는 회사 조직구조의 혁신을 일으키며 직원들의 책임감 상승→회사의 이익상승→직원의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지속 유지되게 하여 상생지속경영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대성 대표이사는 (주)KSS해운에 수십 년간 근무하며 사원으로서, 과장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해왔다. 이에 시스템 경영을 도입시켰고, 2014년부터 201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E-SYSTEM 수립을 통한 전산 경영시스템 도입, 선박관리를 위한 PMS시스템 도입 등 자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을 쏟았다.

그는 이외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한 이해관계자 소통, 선박 운항관련 친환경 부가가치 창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시행 등 (주)KSS해운 본연의 정신인 상생지속경영을 이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텔스타홈멜(주)

임병훈 회장

- 2017년 혁신기업가 대상
- 2015년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 2007년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 2007년 국제경영원(IMI) 경영인 대상 ‘우수지식 경영인상’ 수상

건실한 토종 기업인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굴지의 유럽 기업으로부터 당당하게 투자를 끌어내는 임병훈 회장은 1987년 10월에 텔스타트레이딩이라는 무역회사에서 출발하였다. 통신위성을 의미하는 텔스타를 브랜드로 생각해낸 그의 비전은 이미 그때부터 좁은 한반도 위에서 세계시장을 내다보았다.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임병훈 회장이 가장 중시하는 좌우명이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려면 구성원 모두 추구하는 바는 같되 일하는 방식은 다를수록 좋다는 그의 경영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고사성어이다.

텔스타홈멜(주)은 31년 전 설립 초기부터 직원들을 일본의 선진기업에 기술연수를 보내어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힘써왔으며, 2004년 독일과의 합작투자 이후 매년 우수인재에게 전시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글로벌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워크샵 교육을 2011년부터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매년 수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직원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평생 학습하는 인재를 위해 개인의 잠재역량과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회사가 경쟁력 있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전문회사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을 수행하여 창조혁신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직무 교육으로는 PP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초 교육을 매년 1~2회 실시하고, 프로젝트 수행 시 기초 엔지니어링 이해 증가를 통한 자기 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교육으로는 로봇시스템 및 스마트팩토리 관련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 중이다.

임병훈 회장은 같은 사물을 항상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고를 갖고, 직원들의 해외연수 교육을 진행한다. 매년 4~5월 독일 하노버 전시회 및 콘트롤쇼에 4~5명 연수를 진행한다. 이러한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약 10여년부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련 연수에 매년 5~6명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임병훈 회장의 직원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지금의 텔스타홈멜이 성장하기까지의 가장 큰 밑거름이며, 창조혁신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그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와 탄탄한 기업교육 문화는 텔스타홈멜(주)의 무한한 성장에 발판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쁘띠프랑스

한홍섭 회장

- 2015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100선 선정
- 2014년 한국국제연합봉사단
- 2014년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 2013년 경기도 관광활성화 유공 표창



2008년 문을 연쁘띠프랑스는 매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내국인 포함하면 100만 명 넘게 찾는 관광명소다. 한국방문위원회 집계 외국인관광객 선호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한류관광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은쁘띠프랑스는 30여 년 전 가슴 속의 꿈을 이루려 사재를 투자한 한홍섭 회장의 용기가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쁘띠프랑스는 한국에서 유일한 프랑스 테마파크로, 설립자 한홍섭 회장의 백여 차례의 프랑스 방문과 20여 년간의 준비 끝에 만들어졌다.쁘띠프랑스는 유럽풍의 이색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어린왕자의 생텍쥐페리 문화재단과 라이선스 협약을 하여 생텍쥐페리의 작품과 생애에 대해 전시를 하고, 200년 가까이 된 프랑스 목조주택을 구입하여 그대로 옮겨왔다.

한홍섭 회장은 40여 년 페인트 회사만을 운영하던 사업가로, 프랑스 시골에 매료된 이후 아예 사업을 접고 1988년부터 프랑스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전시를 염두에 두고 수집을 했다고 한다. 준비를 하던 시기에 터진 IMF사태로 자금조달 등 어려움을 겪어 공사착공이 늦어졌지만 오픈 얼마 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로 방송을 탔고, 3년간 계속 건물을 증축하고 전시물과 공연 등을 보강하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기존의 관광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보여 주려 하였다면, 역발상으로 국내에서 유럽의 문화를 보여주는 차별화를 시도해 창조혁신적인 사업역량을 펼쳐왔다.

한홍섭 회장은쁘띠프랑스 창조혁신경영 전략을 3가지로 말한다. 첫째, 기존의 예상했던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니 조달 가능한 범위 보다 줄여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개성이 있어야 한다. 규모나 화려함 보다 개성이 더욱 중요하며 내부 전시물로 사용될 오르골, 닭 모형들을 고를 때도 그 독특한 가치가 인정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매입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어린왕자를 테마로 결정한 이후 일면식도 없는 파리의 생텍쥐페리 기념 재단에 여러 번 찾아가 자료를 부탁했고, 결국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

셋째, 장기간의 사업플랜을 계획해야 한다.쁘띠프랑스를 계획한 이후 오픈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고, 프랑스에서 가져다 복원한 전통가옥의 경우 15번을 찾아가 집을 발견할 정도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시들지 않는 에너지이자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한홍섭 회장의 창조혁신경영 전략은 회사의 직원뿐 아니라, 여러 사업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으며, 21세기 창조혁신에 걸맞은 사업가임에 충분하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율 이사장

-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중앙회장
- (사)신아시아산악관협력기구 이사장
- 평양과학기술대학 대외부총장
- (중국)중앙민족대학 민박동학회 회장

이승율 이사장은 1990년부터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립과 학사운영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8년간 대가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시장의 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 개발, 자문 및 용역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과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자매학교로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건설 초기부터 기획담당이사, 건축위원장,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 양교의 대외담당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 인재교류와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 및 차세대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민간이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을 세웠다.

더욱이 대학운영과 인재 양성에만 그치지 않고 ‘화해와 소통과 나눔’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선린공동체 형성을 체계화 하고자, 2007년도에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을 설립한 후에 한·중·일·러·북한 등 주변국가간 민간교류를 촉진하고, 동북아 국제협력의 신모델 창출을 위한 학술연구와 한반도통일을 위한 대국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과 참포도나무병원, 한티공동체 3개 단체가 북한 이탈주민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약하여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자녀들의 장학지원, 유학지원, 국내정착지원 등 차세대 통일일꾼 양성과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창립한지 11년을 지나면서 민간 싱크탱크로서 활동성과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우수연구단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괄목할 만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승율 이사장은 한민족의 숙원인 한반도통일 사역이 ‘최선의 가치 있는 삶’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시대정신이라 여기고 변함없는 신념과 남다른 사회공헌에 대한 열정으로 통일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공로상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호군 총장

- (사)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총재
- 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 前 인천대학교 총장
- 前 과학기술부 장관



박호군 총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취임, 연구원 최초로 연임에 성공을 하였고, 2003년 과학기술부 장관직을 지내다 인천대학교 총장, KIST 원장,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대한민국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를 맡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청년위함 이사장직과 과학기술포럼 이사장직을 동시에 이행하면서 과학기술부 장관직을 맡았던 시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1세기 현 대한민국이 직면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통해 향후 미래의 노동 산업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도 계속되고 있다. 현시대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나서서 청년들이 산업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또한,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도산했을 때 실직 청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리더가 바로 박호군 총장이다.

박호군 총장은 지금의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타적 의식과 행동을 실천해야 하며, 화합과 융합의 문화를 선진화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관직을 거쳐 총장직을 여러번 임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멈추지 않고 온 힘을 쏟는 그야말로 21세기 현시대의 진정한 사회적인 리더 라고 할 수 있다.



제 1회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

| 종합대상 |



구 자 관

삼구아이엔씨
책임대표사원

| 상생경영부문 |



윤 동 한

한국콜마
대표이사 회장

| 사회공헌부문 |



최 규 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인재경영부문 |



이 형 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 사회봉사부문 |



두 상 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 교육부문 |



김 영 철

동화세상에듀코
대표이사 사장

| 특별상 |



김 병 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제 2회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

| 상생경영부문 |



이 윤 수

KCTC
상임고문

| 사회봉사부문 |



민 남 규

자강산업
회장

| 사회공헌부문 |



강 국 창

동국성신
회장

| 인재경영부문 |



이 병 구

네패스
회장

| 인재교육부문 |



한 재 권

조인그룹
회장

| 특 별 상 |



심 갑 보

삼익THK
상임고문

| 지속기능부문 |



최 양 식

경주시
시장

| 인재개발부문 |



남 유 진

구미시
시장

| 사회소통부문 |



유 두 석

장성군
군수

| 사회복지부문 |



노 현 송

강서구
구청장



제 3회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

| 특별 상 |



박 재 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 가치창조부문 |



조 태 권

광주요
회장

| 상생경영부문 |



박 성 훈

(주)모간
회장

| 나눔봉사부문 |



김 석 문

(주)신일팜글라스
회장

| 인재경영부문 |



강 윤 선

준오헤어
대표이사

| 지속가능부문 |



박 진 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 창조경영부문 |



박 은 관

시몬느
회장

| 인재개발부문 |



이 완 섭

서산시
시장

| 사회소통부문 |



심 규 언

동해시
시장

| 혁신성장부문 |



박 병 중

고흥군
군수